

투쟁속보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인천일보 지부
www.incheonnojo.org

2004년 4월 15일

| 발행인 정찬홍 | 편집인 김진국 · 편집위원 김형태 정인숙 노형래 김성중 |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 인천시 중구 향동4가 18-2 (전화:4520-282 팩스:763-8807) |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

강철대오 투쟁 일단 승리, 개혁프로그램 지속 추진해야

전 조합원이 하나로 단결해 강철대오로 투쟁해 온 결과 13일 승리의 나팔이 울렸다.

신화수 전 사장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모두 인천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의사를 13일 전해오에 따라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19일간 이어져 온 철야농성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투쟁 기조는 주춤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또 14일 경기도 화성 집회를 비롯한 대외선전 투쟁도 일시 중단했으며 사태추이를 주시해가며 투쟁수위를 조절하고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주춤' 사건처럼 돌발상황이 있을 것에 대비해 투쟁국 등 노조 조직은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상황을 주시,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연대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일보의 주식의 51%를 갖고 있는 신 전 사장과 장 전 회장의 이사권리를 비대위로 위임함에 따라 향후 우리 노조가 원하는 증감자를 비롯한 개혁적 민주언론, 시민이 주인되는 지역언론의 발판을 다지게 됐다.

노조는 이에따라 비대위가 추진하는 임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증감자에 맞춰 내부개혁조치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감자에 이은 증자 과정에서 건전한 자본의 영입과 함께 특정회사나 개인이 대주주로 등장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주 공모 등 언론개혁 작업을 완수하기까지 할 일이 많다고 판단, 개혁적 지역언론 만들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비대위와 협력하며 개혁프로그램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찬홍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바른 언론, 참 언론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고 투쟁에 적극 동참해온 조합원들과 언론노조 중앙본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일보는 앞으로 개혁프로그램의 진행과 함께 철저한 내부반성과 비판을 통해 진정한 지역언론, 민주언론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몰아치던 거센 바람을 뚫고 온 동지들이여

지난 19일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단 한 명도 나오하지 않고 전 조합원은 조를 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1층, 4층에 마련한 농성장을 떠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밤새 토론하며 참언론, 개혁언론, 민주언론을 만들어갈 방향을 논의했다. 일할 맛 나는 일터, 활기 넘치는 생활을 위한 방안도 얘기했다. 입사 후 처음 함께 밤을 지새며 허리띠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마주한 자리에서 못할 말이 무엇이겠는가. 처음 직급으로 부르던 호칭은 선후배로 또 형동생이 되었고 그만큼 관계는 긴밀해졌다. 모든 조합원들이 소통하고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노조는 이번 철야농성이 보람있는 투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진정한 지역민의 언론, 민주언론으로 설 디딤돌을 다졌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인천일보는 언론을 모르는 경영인들이, 또 경영도 모르는 사람들이 운영해 오는 바람에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일반 사기업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었다. 지역신문 가운데 부산일보가 중앙지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바로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집이 명백히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들은 바른 관점에서 다수의 의견을 정확히 쓸 수 있으므로 신문의 논조가 정확할 수밖에 없다. 사주의 눈치나 보며 사주의 입맛과 정권과 유착, 특혜를 받는 언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므로 신문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넉넉한 월급, 끊임없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등 투자로 직원들은 생활 걱정 안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신문의 면수나 칼라면 등이 '튼실하게' 나오므로 독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인천은 전국 3대 도시안에 들고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다. 인천의 대표신문이라는 인천일보가 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껏 투쟁한 것은 이처럼 진정한 지역언론, 시민들이 찾는 지역언론이 되기 위함이다.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뎠다. 첫 단추를 잘못 꿴면 옷 모양새 전체가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시민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저 인천일보에 다닙니다"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개혁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번 투쟁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조합원들간 단결과 사랑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몇 안되는 인천일보 식구들은 서로 얼굴만 알고 지냈지 누가 누구인지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투쟁을 통해 이름 아는 것을 넘어 형제처럼 관계가 발전했다. 이는 앞으로 노조가 적극 추진하는 '1인1동아리 갖기' 운동과 더불어 회사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은 투쟁에서 일전을 거둬으로써 자신감을 얻었으며 전투력을 비축했다. 우리 노조는 앞으로 싸움을 자제할 생각이지만 또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므로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인천일보의 싸움은 수구보수 족벌재벌 언론인 '조중동' 대 개혁진보언론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어렵게 쌓아온 싸움이었으므로 그만큼 실전경험을 다질 수 있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어깨를 맞잡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 달려나갑시다.

감 사 드 립 니 다

그동안 인천일보의 참언론을 위한 결사투쟁에 동참해 주시거나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일보는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의 신문이 되려는 개혁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원부탁드립니다.

1.언론관련 단체 -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경인일보지부, 광주일보지부, 전남일보지부, 국제신문지부, 제민일보지부, 경남일보지부, 남해신문지부, 경남신문지부, 매일신문지부, 영남일보지부, 경남도민일보지부, 부산일보지부, 인천일보지부), 경인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경인일보지부, 경인방송지부, 경기방송지부, 인천일

보지부).

2.노동관련 단체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여성노동자협의회, 건강한 노동세상, 인천노동교육연구원,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3.종교·시민·사회·환경 관련 단체 -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인천경제

정의실천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환경연대, 남동시민모임, 부평시민모임, 서구환경교통대책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하대민교협, 가톨릭

인천교구노동자센터, 가톨릭인천교구 대학생연합회, 가톨릭인천교구부평노동사목, 가톨릭인천교구 청년연대, (사) '내일' 청소년생활문화마당, 시민문화센터, 인천교대총학생회, 인천대학교총학생회, 인천전문대학총학생회, 인하대학교총학생회, 지역정보화센터, 인천여성회.